

아버지-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최나은** · 유준호*** · 조해연****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생과 아버지의 관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대학생 총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버지-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녀의 아버지-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자녀관계는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버지-자녀관계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아버지-자녀관계는 대학생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 아버지-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

논문투고일: 2022. 01. 18. 최종심사일: 2022. 03. 13. 게재확정일: 2022. 03. 19.

* 본 논문은 을지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학년/다학제-대학원 연구활성화 연구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임.

** 을지대학교 아동학과

*** 을지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 을지대학교 아동학부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Ryu, Jun-Ho.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am-si, Gyeong-do, Korea. 13135, E-mail: rjh@eulji.ac.kr

I. 서론

가정은 성장과 발달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자 사회의 기초이다. 가족관계 내의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이학옥·이정숙, 2000).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부모와의 상호관계에서 경험하는 질적 측면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인재, 2007).

이처럼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인간 발달 단계 중 특히 아동기에서의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어머니와 자녀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종임과 도미향(2021)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의사존중역량과 자기성장역량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혜경(202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또래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아버지 역할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순덕, 2005). 아버지-자녀관계는 어머니-자녀관계 못지 않게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며,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인지학습, 성취동기, 사회성 발달 등의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김민경, 2009; 이순희, 2002).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변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놀이참여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으며, 아버지는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아버지로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최효원·김낙홍, 2021).

자기효능감은 Bandura에 의하면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이지선, 2010).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타인에 의한 평가를 통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견해이며, 상황이나 환경, 행동영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케 하며 구체적인 행동에서의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정미현·이경주, 2020).

자기효능감과 아버지-자녀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문혁준, 1999),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높을수록(한소영·신희천, 2009)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 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향숙·장윤옥, 2001).

한편, 사회성이란 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며 서로 돕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회관계를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귄 수 있는 능력 또는 적응성, 개인관계의 원만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일권, 2004). 사회성은 대인관계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버지 역할수행 수준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진열·김상미, 2011).

아버지-자녀관계와 사회성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혜정(2021)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와 유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아버지가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와 같은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아버지가 유아에게 보이는 애정적 태도의 경우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등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아버지와의 애착은 친구관계에 직접 영향 미치고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서도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애착이 어머니 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원모·천성문, 2008).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는 아버지-자녀관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자녀관계를 다루기보다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애착 및 의사소통 등만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의 가치관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관계는 가족학 연구에서 최근 예야 주목을 받았으나 이 역시 아동 및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윤경자·임주영, 2014) 대학생들과 아버지와 관계는 간과되어 왔다. 아버지와 자녀관계는 관계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초기에까지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Aquilino, 2006), 아버지가 자녀들의 삶에 적게 관여할 때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대학생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대인관계에 대해 재구조화하며 심리·사회적으

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Shanahan et al, 2007). 이 시기에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아정체감을 정립해야 하며 이것에는 가족과 부모의 영향이 크다. 자녀의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에 더 관여하지만, 자녀가 성인기에 이르면 진로선택과 새로운 목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서 새로운 양육과 조언이 필요하게 되면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윤경자·임주영, 2014). 독립을 준비하는 성인초기가 된 대학생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 습득이 필요한데 이 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현주·오윤자(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박은선(201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특성이 긍정적 인지와 긍정적 질문을 통해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발달에 높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과 아버지 관계가 성인초기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자녀관계 및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살펴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자녀관계를 위주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자녀관계 향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 참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 소재의 대학생 208명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08)

변인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여	149	71.6
	남	59	28.4
재학상태	재학	178	85.6
	휴학	23	3.4
	졸업	7	11.1
학년	1학년	53	25.5
	2학년	82	39.4
	3학년	50	24.0
	4학년	15	7.2
	기타	8	3.9
형제유무	유	191	91.8
	무	17	8.2

2. 연구도구

1) 아버지-자녀관계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자녀관계는 최인재(2007)가 개발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 PRI) 중

어머니-자녀관계를 제외한 아버지-자녀관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엄격영역 3개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버지-자녀관계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양육참여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아버지 자녀관계	친밀	7	.94
	헌신	6	.91
	존경	4	.87
	엄격	3	.81
	전체	20	.96

2)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Scale,SES)를 홍혜영(199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 10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3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자기효능감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17	.64
	사회적 자기효능감	6	.68
	전체	23	.76

3) 사회성

대학생의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범모(1971)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태룡(1998)과 최남기(2004)의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를 강고운(2016)이 수정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경우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활동성에서 1문항, 안전성에서 5문항, 사교성에서 1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성 설문지 내용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성	활동성	.68
	안전성	.64
	지배성	.78
	사교성	.73
	전체	.85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아버지-자녀 관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사회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넷째, 아버지-자녀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아버지-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 간의 관계

대학생의 아버지-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자녀의 아버지-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버지-자녀 관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성 간의 관계

(N=208)

구분	아버지-자녀관계	대학생 자기효능감	대학생 사회성
아버지-자녀관계	1		
대학생 자기효능감	.073**	1	
대학생 사회성	.186**	.272**	1

**p < .01

아버지-자녀관계는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의 사회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자녀 관계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사회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사회성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사회성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아버지-자녀 관계의 ‘친밀’은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하위요인 중 활동성, 지배성, 사교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헌신’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존경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 사교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엄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사회성 하위요인 간의 관계 (N=208)

구분	친밀	헌신	존경	엄격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활동성	안전성	지배성	사교성
친밀	1									
헌신	.764**	1								
존경	.789**	.790**	1							
엄격	.661**	.479**	.439**	1						
일반적 자기효능감	.062**	-.029	.038**	-.134	1					
사회적 자기효능감	.311**	.021	.014	-.103**	.311**	1				
활동성	.287**	.157**	.244**	.187**	-.323**	-.199**	1			
안전성	-.010	-.047	-.036	.095	.055	.052	.236**	1		
지배성	.167**	.104	.130	.063	-.281**	-.148**	.584**	.153*	1	
사교성	.187**	.105	.193**	.067	-.255**	-.137**	.656**	.258**	.649**	1

*p < .05, **p < .01

2. 대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인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을 투입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선선 통계량에서는 공차와 VIF는 1에 접근하여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버지-자녀 관계 요소 중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이라는 네 변수가 함께 투입되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28% 설명해 준다. F 값이 2.98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생 사회성에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서는 베타 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친밀, 존경, 헌신, 엄격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N=208)
(N=208)

독립변수	B	β	t
친밀	.26	.36	8.23**
헌신	-.16	-.18	-3.80**
존경	.38	.22	5.20**
엄격	-.14	-.16	-3.20**
상수 = 3.17		F=2.98**	R ² =.28

3. 대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인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을 투입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선선 통계량에서는 공차와 VIF는 1에 접근하여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사회성 하위요인에 영향
(N=208)

변수	B	β	t
친밀	5.90	.41	3.57**
헌신	-.10	-.13	-2.25**
존경	1.72	.22	8.23**
엄격	-.13	-.16	-3.22**
상수 = 27.10		F=24.7**	R ² =.31

아버지-자녀 관계 요소 중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이라는 네 변수가 함께 투입되어 대학생의 사회성을 31% 설명해 준다. F 값이 24.7 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서는 베타 값(β)을 기준으로 볼 때 친밀, 존경, 헌신, 엄격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사회성,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사회성,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대학생 자녀의 아버지-자녀 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는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의 사회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최경아, 2015; 강태완·장해순, 2005에서 재인용)의 연구와 부-자녀 간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선명숙, 2011)는 연구 결과와 같이 아버지-자녀관계관계가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자녀 관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사회성 각각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인 중 ‘친밀’이 사회성의 하위요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자녀 관계가 친밀할수록 사회성과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선미(2011), 장성홍·고영완(2019)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 중에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경우도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학습이 촉진되며(문승태 외, 2012) 대학생의 사회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역량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커진다는 전란영 외(2020)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학습역량을 증가시키고 학교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자녀 관계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소 중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볼 때 친밀, 존경, 헌신, 엄격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자녀 간 의사

소통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으며(이상숙, 2009), 자녀가 아버지를 엄격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이현주·오윤자, 2011)는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친밀성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 있으나 친밀한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버지-자녀 관계의 통합적 향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현주 외, 2011).

셋째, 아버지-자녀 관계는 대학생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자녀 관계 하위요소 중 대학생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볼 때 친밀, 존경, 헌신, 엄격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애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자녀는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겪는다는 박은희(2015)의 연구와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험하게 되는 사회불안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양선 외(2013), 허재홍(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생의 사회성은 대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이명진 외, 2012; 송동수·한광령, 2009),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대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요인 외에도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담 등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아버지-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아버지-자녀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요인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즉,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더 필요할 것이며, 여러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고운(2016). 대학생의 교내 스포츠 리그 참여경험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성의 차이.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태완·장해순(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3(2), 104-130.
- 김민경(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성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11). 초등학교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진열·김상미(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문승태·박미하·양복만 (2012).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5(3), 39-60.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 37(9), 141-151.
- 박순덕(2005). 아버지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 간 차이와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모·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5(1), 41-59.
- 박은선(2010). 아버지의 특성과 긍정적 인지와 질문이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17-1136.
- 박혜정(20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유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603-614.
- 박은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명숙(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동수·한광영(2009). 체육계열 학생의 사회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1), 49-60.
- 신향숙·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이상숙(2009).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과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임·도미향(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4), 5-25.

- 윤경자·임주영(2014). 대학생들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자아탄력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 95-113.
- 이명진·이정민·이진민·최봉준·전진호·손혜숙(2012). 여대생의 사회성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8), 300-309.
- 이순희(2002). 아버지됨 역할수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 *生活文化研究*, 16, 146-170.
- 이지선(2010).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옥·이정숙(2000). 아버지 자녀양육 행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존중감의 형성. *韓國生活科學研究*, 18, 49-60.
- 이현주·오윤자(2011).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관계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1), 157-173.
- 이혜경(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 지각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33-48.
- 장성홍·고영완(2019). 청소년의 검토 수련만족, 자기효능감,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모형 분석. *대한검도학회지*, 30(1), 96-113.
- 장일권(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종합연구*, 2(2), 285-303.
- 전란영·서은주·윤정진·정수정(2020).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역량이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성의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235-258.
- 정미현·이경주(2020).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모교육연구*, 17(3), 19-37.
- 조양선·손술·서경현(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03-217.
- 최경아(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정서표현성 및 양성평등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남기(2004). 고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형태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 최효원·김낙홍(2021). 아버지와 유아기 자녀의 거친 신체놀이의 의미 탐구. *어린이문학연구*, 22(4), 75-105.
- 한태룡(1998).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소영·신희천(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허재홍(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quilino, W. S. (2006). The noncustodial father-child relationship from adolescence in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929-946.

Shanahan, Lilly., McHale, Susan M., Crouter, Ann C, Osgood, D. Wayne. (2007). Warmth with mothers and fathers from middle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Within - and between - families comparis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51.

Abstract

The Effect of Father–Child Relationship O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Social Performance

Choi, Na-Eun* · Ryu, Jun-Ho** · Cho, Hea 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child and self-efficacy and the social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late and to find ways to promote future support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father’s relationship. For this study, a total of 208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were surveye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 and father, self-efficacy, and sociali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father-child relations on self-efficacy and sociality of the college studen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sociality of college student children,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ocial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Second,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influenced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Third,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influenced the sociality of college stud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father-children relationship, self-efficacy, sociality

* University Student, Child Studies and Education, Eulj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hood, Eulj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hood, Eulji University